

## 비평논문

# 위그노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

- 16세기 종교내전에서 18세기 이민공동체의 형성까지 -

박 효 근

- |                                      |                           |
|--------------------------------------|---------------------------|
| I. 들어가며                              | IV. 1685년 이후: 탄압과 저항, 그리고 |
| II. 1540-1598년: 종교공동체에서<br>정치적 당파로   | 이민공동체의 확산                 |
| III. 1598-1685년: 사회문화적 소수파<br>집단의 형성 | V. 나가며                    |

## I. 들어가며

위그노(Huguenots)<sup>1)</sup>, 칼뱅파(Calvinistes)<sup>2)</sup>, 개혁파(Réformés)<sup>3)</sup>, ‘테제르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8956).

- 1) 위그노라는 용어의 기원은 다소 모호하며, 다음 두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학설은 독일어 eid(oath, 맹세)와 genoss(participants, 동지)라는 말의 복합어인 Eidgenossen (confederation/league)이란 단어가 프랑스화되었다는 견해로, 이는 원래 1520년대 제네바에서 사보아 공작의 지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이럴 경우 위그노라는 말은 ‘이단’의 근원인 제네바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군주의 지배를 거부하는 반란의 정신까지 포함된 이중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이다. 두 번째 해석은 투르 지방의 위공(Hugon de Tours) 전설에서 유래되었다는 학설인데, 이 경우 위그노는 저주받은 어둠의 세력을 이끄는 위공 왕의 수하라는 뜻이 된다. 이처럼 ‘위그노’라는 용어는 프랑스 칼뱅파들이 스스로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 거부감을 지닌 가톨릭교도들의 반감 속에서 형성된 단어로, 1560년 앙부아즈 음모(Conjuratión d'Amboise) 이후 문헌기록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위그노라는 용어에 담긴 경멸적 뉘앙스는 점차 희석되었고, 개혁파 진영에서도 스스로를 위그노라 칭하는 등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전반을 지칭하는 보편적 단어로 자리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sup>6)</sup>

이처럼 위그노가 근본적으로 종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16세기 프랑스 종교내전 속에서 그들이 담당한 정치적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sup>7)</sup> 그러나 위그노를 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급조된 정치적 이권단체로만 해석한다면 이들이 프랑스 역사 속에서 담당했던 복합적인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필자가 보기에 위그노 집단은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속성 아래 해석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단히 변형하고 재구성해왔다. 이처럼 위그노의 집단정체성을 통시적 차원에서 분석할 때,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역사적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위그노 연구의 지평 역시 프랑스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을 주변부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좀 더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위그노의 집단정체성은 그들이 처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크게 세 단계의 변형과정을 거쳤는데,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혁파 종교공동체에서 위그노라는 정치적 당파로 변형을 시도한 16세기 중반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개혁파 지도자들은 프랑스를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

6) 엄격하게 말하면, 위그노라는 용어는 16세기 프랑스 개혁파가 정치화되어 당파로 조직된 세력을 뜻한다. 그러나 18-19세기 프랑스 출신 칼뱅파가 구성한 해외 망명 공동체에서도 자신들을 '위그노'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위그노의 의미는 점차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그노'라는 명칭을 프랑스 칼뱅파 전반을 뜻하는 보편적 명칭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 성격을 강조할 때는 '개혁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7) 16세기 위그노 집단과 종교내전을 해석함에 있어, 정치적 속성을 강조하는 학자로 톰슨(James Westfall Thomson)과 널(J. E. Neale), 로미에(Lucien Romier)와 마리에올(Jean H. Mariéjol)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사회사의 대두로 인해 위그노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그 계열의 학자로 라부루스(Elisabeth Labrousse), 스토퍼(Richard Stauffer), 하스(Erich Haase), 라플랑슈(François Laplanche) 등을 들 수 있다. 위그노와 종교내전의 해석변화에 대해서는 Mack P. Holt, "Putting Religion Back into the Wars of Relig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8, No. 2(Autumn 1993); Philip Benedict, Hugues Daussey & Pierre-Olivier Léchet, *L'identité huguenote: faire mémoire et écrire l'histoire (XVI<sup>e</sup>-XXI<sup>e</sup> siècle)*(Genève: Droz, 2014), pp. 13-33.

실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편이었다. 따라서 개혁과 세력은 반감을 사기 쉬운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강조하는 ‘위그노’ 당파로 재조직되었고, 이를 통해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변화의 계기는 1572년 생 바르텔르미 학살과 1598년 낭트칙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급속하게 쇠퇴한 위그노 집단은 더 이상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승리를 꿈꿀 수 없었고, 자신들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1598년의 낭트칙령을 통해 획득한 법적 승인을 기반으로, 위그노 집단은 이제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 국가 내 두 종교의 공존이라는 특별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17세기 프랑스 개혁파는 스스로를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집단이라 규정하게 되었다.

1685년 낭트칙령 철회를 통해 프랑스에서 모든 법적 기반을 잃게 된 위그노들은 ‘저항’과 ‘관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축으로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더 이상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개혁 신앙을 추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위그노들은 폭동이나 망명 등의 수단을 통해 강경하게 이 상황에 저항하였다. 또한 18세기 들어 양심과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프랑스 내외의 위그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찾기 위해 관용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결국 위그노들은 18세기 이후 독재에 저항하고 자유와 관용을 추구하는 근대문화의 선구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sup>8)</sup>

본 논문은 종교적 종파에서 정치적 당파로, 사회문화적 공동체에서 탄압 받는 소수자로 꾸준히 변형된 위그노 정체성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연구사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일종의 시론이다. 위그노에 대한 국내 연구가 종교전쟁이나 낭트칙령 등 비교적 정치적인 주제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프랑스와 영미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작업은 향후 위그노 연구의 관점을 다원화하고, 그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6세기 중

8) 현대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위그노의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고자 한다.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4: 프랑스들 2』, 김인중·유희수 외 옮김(나남, 2010), 117-118쪽.

파 정체성의 형성과 위그노 당파의 역동에 관해, 3장에서는 17세기 초중반 위그노 집단의 변형과 적응에 대해, 그리고 4장에서는 1685년 이후 망명공동체의 형성과 위그노 정체성의 재구성에 대해 기존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종교적 소수파이자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지닌 독특한 집단인 위그노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위그노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변동과정을 통해 마이너리티 집단의 역동과 적응방식에 대해 파악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II. 1540-1598년: 종교공동체에서 정치적 당파로

1540년 프랑스에 칼뱅파 사상이 도입된 이래, 프랑스 개혁파는 프랑스 인구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2백만 명의 신도와 1,350여 개의 교회를 갖출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sup>9)</sup> 그리고 1559년에 이르면, 개혁파는 전국 시노드에서 자신들의 신앙내용을 고백하는 신앙고백(Confession de Foi)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규칙을 결정하는 규율집(Discipline Ecclésiastique)을 만들 정도로 제네바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sup>10)</sup>

급속도로 성장한 개혁파는 16세기 현실 속에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하나는 가톨릭과 차별되는 종파적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탄압과 박해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랑스 개혁파는 16세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될 전통적인 논리와 수사를 만들어냈다.

프랑스 칼뱅파는 스스로를 신의 섭리에 의해 구원이 약속된 선민들이라 여겼고, 자신들의 교회야말로 초대 교회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신앙공동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들은 신학적, 의례적 개혁을 통해 가톨릭교회에 만연한

9) 16세기 프랑스 개혁파의 지형학적 분포에 대해서는 Samuel Mours, *Les Églises réformées en France: tableaux et cartes*(Paris: Librairie Protestante, 1958). 개혁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연구로는 Glenn S. Sunshine, *Reforming French Protestantism: The Development of Huguenot ecclesiastical Institution, 1557-1572*(Kirs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2003).

10) 프랑스 칼뱅파의 독자성에 대한 연구로 Thierry Waneffelen, *Ni Rome ni Genève: Des fidèles entre deux chaires en France au XVI<sup>e</sup> siècle*(Paris: Champion, 1997); Bernard Roussel, “Colonies de Genève? Les premières années de vie commune des Églises réformées du royaume de France (ca 1559-1571)”, *Bulletin de la Société d'Histoire et d'Archéologie de Genève*(1996-1997), pp. 1-13.

미신과 우상숭배를 일신하고, 청빈하고 도덕적이며 조화로운 공동체 질서를 구현해 선민에 어울리는 올바른 신앙심과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적 대안이 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개혁파는 세례, 결혼, 장례 등 일상생활에 직결된 각종 종교의례를 새롭게 개혁했고, 가톨릭 미사를 대체할 독자적 예배 방식을 창안했다.<sup>11)</sup>

칼뱅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뚜렷한 특성은 엄격한 규율에 바탕을 둔 금욕적 도덕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칼뱅파 특유의 감찰기구인 콩시스투아(consistoire)가 설립되었다. 당시 작성된 콩시스투아의 회의록은 위그노 조직의 본산이었던 프랑스 남부지방의 도시를 중심으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2)</sup>

과거 칼뱅파의 도덕개혁은 콩시스투아와 장로조직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된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상당수의 학자들은 회의록 분석을 통해 칼뱅파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정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동체 내부의 분쟁과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기 위해 온건하고 융통성 있는 수단을 선호했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sup>13)</sup> 프랑스 개혁교회와 콩시스투아에 대한 연구로는 님(Nîmes) 교회의

- 11) 개혁파 종교의례의 혁신에 대해서는 Bernard Roussel, "Ensevelir honnestement les corps: funeral corteges and Huguenot culture", R.A.Mentzer & Andrew Spicer (eds.), *Society and Culture in the Huguenot World*(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2), pp. 193-208; Raymond A. Mentzer, "Laity and Liturgy in the French Reformed Tradition", Lee Palmer Wandel (ed.), *History has many Voices* (Kirks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2003), pp. 71-92.
- 12) 멘처는 최근 현재까지 남아있는 프랑스 개혁파 교회의 콩시스투아 기록을 정리하여 편집, 출간한 바 있다. Raymond Mentzer, *Les Registres des consistoires des Églises réformées de France-XVI<sup>e</sup>-XVII<sup>e</sup> siècles. Un inventaire*(Genève: Droz, 2014). 교회와 콩시스투아를 통해 위그노가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재구성하는 작업 전반에 대해서는 Raymond A. Mentz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Early Huguenot Identity", Philip Benedict, Hugues Daussy & Pierre-Olivier Léchet, *L'identité huguenote*, pp. 49-65.
- 13) 이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각지의 칼뱅파 전반이 공통적으로 지닌 속성이었다. 다음을 참조할 것: Robert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Heinx Schilling, "Reform and Supervision of Family Life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 R. Mentzer (ed.), *Sin and the Calvinist: Moral Control and the Consistory in the Reformed Tradition*(Kirks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1994, 2002), pp. 15-61.

도덕개혁을 분석한 카레이어(Philippe Chareyre)와 멘처(Raymond Mentzer)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멘처는 칼뱅파 콩시스트וא의 운영방식을 전 유럽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한 논문집이나,<sup>14)</sup> 이러한 규율혁신이 위그노 공동체의 종파적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1559년부터 1685년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분석한 논문집 등을 기획, 편집하여 프랑스 칼뱅파의 정체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sup>15)</sup>

개혁과 세력이 확대될수록, 프랑스 왕권과 가톨릭교회는 그들을 왕국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고 탄압과 박해를 강화하였다.<sup>16)</sup>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파는 내부적으로는 순교자 정서를 적극 활용하였고, 외부적으로는 현실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개혁파 지도자들은 순교자들의 영웅적 행동을 상찬하고 이들의 피가 개혁신앙을 프랑스에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수사를 활용하였다. 특히 장 크래스팽의 『순교자 열전』<sup>17)</sup>은 개혁파 신도들이 ‘순교자 정서’를 내면화하고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sup>18)</sup> 최근에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의 비극이 지닌 참담함을 이미지화하여 이를 칼뱅파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중선전에 활용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sup>19)</sup>

14) Raymond A. Mentzer (ed.), *Sin and the Calvinists: Morals Control and the Consistory in Reformed Tradition*. 앞서 언급한 카레이어와 멘처의 논문은 모두 이 저작에 수록되어 있다. Philippe Chareyre, “《The Great Difficulties One Must Bear to Follow Jesus Christ》: Morality at Sixteenth-Century Nîmes”, pp. 63-96; Raymond A. Mentzer, “Making the Taboo: Excommunication in French Reformed Churches”, pp. 97-128.

15) Raymond Mentzer and Andrew Spicer (eds.), *Society and Culture in the Huguenot World*(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2).

16) William Monter, *Judging the French Reformation: Heresy Trials by Sixteenth Century Parlements*(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9).

17) Jean Crespin, *Histoire de vrays tesmoins de la vérité de l'euangile, qui de leur sang l'ont signée, depuis Jean Hus iusques au temps present*(Genève: Crespin, 1570).

18) 프랑스 개혁파가 순교자 정서를 구축한 방식에 대해서는 Nikki Shepardson, *Burning Zeal: The Rhetoric of Martyrdom and the Protestant Community in Reformation France, 1520-1570*(Cranbury: Lehigh Univ. Press, 2007); David El Kenz, *Les Buchers du roi. La culture protestante des martyrs (1523-1572)*(Seysssel: Champ Vallon, 1997).

19) Philip Benedict, Lawrence M. Bryant, and Kristen B. Neuschel, “Graphic History:

1550년대 후반부터 개혁파 세력은 자신들의 종파적 속성을 정치적으로 변주하는 방법을 찾고자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교적 기치 아래 집결한 개혁신앙 공동체는 좀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그노 당파(*le parti huguenot*)로 재구성되어, 1562년부터 30년 이상 지속된 종교내전에 임하게 되었다.

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한 방대한 연구실적 중에서, 위그노 진영의 역동에 초점을 맞춘 저작은 생각보다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 내전 시기 위그노 진영은 순수한 종교적 성향 아래 모인 동질적 집단이라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연대한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당파라 해석되었다. 실제로 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진영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고위 귀족들이었고, 이들과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다수의 중간귀족들이 군사력의 핵심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수의 학자들은 위그노를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하였고, 그들의 종교적 목표는 소수파로서의 종교적 인정과 생존에 있었다고 보았다. 16세기 중반 위그노 정파에 대한 선구적 저서를 남긴 서덜랜드(Nicola Mary Sutherland) 역시 이런 관점에 충실했고, 위그노 정파의 역사적 경험을 ‘인정을 위한 투쟁’이라 규정한 바 있다.<sup>20)</sup>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몇몇 학자들은 위그노의 종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프랑스 종교전쟁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대표하는 도시(Hugues Daussy)는 프랑스 왕국 전체를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겠다는 신교도들의 유토피아적 신념과 영적 확신이 위그노 당파의 형성과 조직, 운영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도시가 보기에, 1550년대 프랑스 개혁파 진영은 자신들이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종교(*la vraie religion*)’에 속해 있으며, 개혁파 신앙이 프랑스 내에서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현실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파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색채는 최대한 감춘 채 프랑스의 충실한 신민으로서 외국인인 기즈 가문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그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연대했고, 그 결과 ‘위그노’라는 정치적 당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sup>21)</sup>

What Readers Knew and Were Taught in the Quarante Tableaux of Perrissin and Tortorel”,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8, No. 2(Spring 2005), pp. 175-229.

20) Nicola Mary Sutherland, *The Huguenot Struggle for Recognition*(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80).

이런 가설 아래 도시는 1557년부터 1572년까지 위그노 당파의 유포피아적 전망이 현실의 정치적 결단과 운영에 있어 어떤 역할을 차지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는 위그노 당파 내 목사들의 행적, 종교지도자와 귀족 사이의 갈등, 개혁파 교회조직과 위그노 조직 사이의 상관관계, 내전 시기 간행된 선전 팜플렛이나 논문 등을 활용해 위그노 당파의 정치적 담론 형성과정 등을 추적하였다.<sup>21)</sup>

도시는 위그노 정파가 지녔던 낙관적인 종교적 전망은 1572년 생 바르텔레미 대학살과 함께 무참히 종결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위그노 지도자들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현실을 최대한 조화롭게 결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는 대표적인 위그노 사상가이자 전략가였던 뒤플레시스 모르네(Philippe Duplessis-Mornay)의 정치적 투쟁을 통해 위그노 집단과 프랑스 왕실, 그리고 앙리 4세 사이의 역학을 분석하기도 했다.<sup>22)</sup>

크루제(Denis Crouzet)는 종교전쟁에 대한 또 다른 시사점을 주는데, 그에 따르면 종교전쟁이란 ‘종교적 욕구에서 발생한 종교적 위기이며, 신을 위한, 신과 함께 한, 그리고 신 안에서 벌어진 싸움들이므로 결국 한 세기동안 계속된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종교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지에서 그는 위그노와 가톨릭 두 공동체가 지닌 종교적 신념, 열망, 그리고 적개심 등 정신적 차원이 때로는 현실적 상황논리를 넘어설 정도로 강력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종교전쟁 시기 가톨릭 공동체는 프로테스탄트의 확산과 종교적 분열을 말세의 징후라 판단했고, 이를 막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위그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믿음 아래 새로운 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전쟁에 나섰다. 결국 16세기 프랑스 종교전쟁은 두 신앙 사이의 충돌, 두 왕국 사이의 충돌인 것이다. 크루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정교한 설명이나 이론 대신 수없이 많은 사료를 인용

21) Hugues Daussy, “L’invention du citoyen réformé. L’expression de l’identité politique huguenote dans la littérature polémique et les premiers ouvrages historiques réformés”, Philip Benedict, Hugues Daussy & Pierre-Olivier Léchet, *L’identité huguenote*, pp. 37-48.

22) Hugues Daussy, *Le parti huguenot: Chronique d’une désillusion (1557 -1572)* (Genève: Droz, 2014).

23)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 (1572-1600)*(Genève: Droz, 2002).

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를 통해 16세기 사람들에게 신과 종교가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이었는지 생생히 보여주었다.<sup>24)</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 16세기 위그노 당파란 개혁파가 종교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현실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집단이라 볼 수 있겠다. 1540년대 형성된 프랑스 개혁파는 복음주의적 신념 아래 완전한 승리를 꿈꾸었으나, 1572년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과 1598년 낭트칙령을 거치면서 소수파로서의 생존을 확보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 III. 1598-1685년: 사회문화적 소수파 집단의 형성

위그노 당파의 지도자였던 앙리 드 나바르는 개종 후 앙리 4세로 즉위하고, 1598년 낭트칙령을 반포하였다. 위그노 진영에게 군사적, 물리적 근거지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신앙과 교회조직을 인정한 낭트칙령은 ‘관용(tolérance)’의 역사적 기원처럼 해석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낭트칙령이란 내전 종식을 위한 일종의 임시변통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sup>25)</sup> 17세기 위그노 연구자들은 낭트칙령의 제 조항이 각 지방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지역별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한 국가 내 두 종교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실험방식에 대해 고찰해왔다.<sup>26)</sup>

24) Denis Crouzet, *Les Guerriers de Dieu: La violence au temps des troubles de religion vers 1525-vers 1610*(Paris: Champ Vallon, 1990).

25) Thierry Wanegffelen, *L'Édit de Nantes: Une histoire européenne de la tolérance du XVI<sup>e</sup> au XX<sup>e</sup> siècle*(Paris: Le Livre de Poche, 1998); François Chevalier, *Coexister dans l'intolérance: Édit de Nantes(1598)*(Genève: Labor et Fides, 1998).

26) 16-17세기간 가톨릭과 신교도의 공존양상에 대한 개론적 접근으로 Philip Benedict, “Un roi, une loi, deux fois: parameters for the history of Catholic-Reformed co-existence in France, 1555-1685”, Ole Peter Grell and Bob Scribner (eds.), *Tolerance and Intolerance in the European Reforma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낭트칙령의 적용에 대한 지역별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iane C. Margolf, *Religion and Royal Justice in Early Modern France: The Paris Chambre de l'Édit(1598-1665)*(Kirs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2003); Tristan Boffard, “L'application de l'Édit de Nantes a Lyon”, *B.S.H.P.F.*, t. 145

17세기 프랑스에서 개혁과 세력의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다. 신도의 수는 전성기였던 156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정도인 백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신도의 80퍼센트 이상이 '개혁교회 초승달 지역(croissant réformé)'이라 불리던 남부 지방, 특히 미디(Midi) 지역에 거주하였다. 무엇보다 위그노 정파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귀족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이탈하였고, 그 빈자리는 부르주아지로 대체되었다. 결과적으로 17세기 위그노는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 국한된 지역적인 소수와 집단으로 변모하였다.<sup>27)</sup>

1621년 라 로셀 공성전의 패배와 1629년 님 칙령(l'édit de Nîmes)을 통해 정치적 세력으로서 위그노 당파는 소멸되었고 위그노 공동체의 존립 여부는 철저히 왕권의 보호 아래 맡겨졌다. 따라서 17세기 위그노들은 자신들이 결코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체성 정립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17세기 위그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교육 사업에 힘을 쏟는 한편,<sup>28)</sup> 부르주아지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sup>29)</sup>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로 망명한

---

(1999), pp. 285-321; Stephane Capot, *Justice et religion en Languedoc au temps du l'Édit de Nantes: la chambre de l'État de Castres (1579-1679)*(Paris: École des Chartres, 1998); Elisabeth Rabut, *Le roi, l'Église et le temple: L'exécution de l'édit de Nantes en Dauphiné*(Grenoble: La Pensée sauvage, 1987).

27) 17세기 위그노 집단의 규모와 성격 변동에 대해서는 Philip Benedict, "Catholics and Huguenots in Sixteenth-century Rouen: The Demographic Effects of the Religious Wars", Vol. 9, No. 2(Autumn 1975), pp. 209-234; Philip Benedict, *The Faith and Fortunes of France's Huguenots, 1600-85*(Aldershot: Ashgate, 2001).

28) 17세기 위그노 교육과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서정복,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육이념과 위그노 콜레주의 설립』, 『호서사학』 22집(2006); Jean-Paul Pittion, "Les académies réformées de l'édit de Nantes à la Révocation",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et le protestantisme français en 1685*(Paris: S.H.P.F., 1986), pp. 187-208; Sheridan and Viviane Prest (dir.), *Les Huguenots éducateurs dans l'espace européen à l'époque moderne*(Paris: Champion, 2011); Geraldine Michaël Green, "A Huguenot Education for the Early Modern Nobility", *Huguenot Society Journal* XXX (1)(2013), pp. 71-91.

29) Warren C. Scoville, "The Huguenots in the French Economy, 1650-175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7, No. 3(Aug. 1953), pp. 423-444; Warren C. Scoville, *The Persecution of Huguenots and French Economic Development (1680-1720)*(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0); J. F. Boshier, "Huguenot Merchants and the Protestant International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위그노 집단과 연대하여 과학기술 등 최신 문화를 프랑스에 도입하는 등 지적으로 선구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했다.<sup>30)</sup> 그중에서도 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서클과 대표적 활동가 발랑탱 콘라르(Valentin Conrart, 1603-1675)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설립의 시조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하다.<sup>3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위그노 공동체의 현실은 밝지 않았다. 가톨릭 종교개혁의 열기 속에서 프랑스 가톨릭 진영의 영적 결집은 더욱 확대되었고, 루이 14세 즉위 이후 개혁파에 대한 견제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가톨릭과 위그노 공동체 사이의 공존은 점차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전히 가톨릭 세력은 위그노를 궁극적으로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할 존재라 여겼고,<sup>32)</sup> 루이 14세는 낭트칙령의 적용을 법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는 방식으로 위그노 세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실정이었다.<sup>33)</sup>

하지만 분명한 것은, 1598년에서 1685년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에는 한 국가 내 두 종교가 공존한다는 이례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절대다수인 가톨릭 사회 속에서 소수파인 개혁파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활용한 공존의 기술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가톨릭과 위그노의 공생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은 최근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주제라 사료된다.<sup>34)</sup>

---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52, No. 1(1995), pp. 77-102

30) Charles Littleton, "Philanthropy and Philosopher's stone: Robert Boyle and the Huguenots of the Refuge", *Proceedings of the Huguenot Society of Great Britain & Ireland*. Vol. 27 Issue 5(2002), pp. 679-691.

31) Nicolas Schapira, *Un professionnel des lettres au XVII<sup>e</sup> siècle: Valentin Conrart, Une histoire sociale*(Seysssel: Champ Vallon, 2003).

32) Bernard Dompnier, *Le venin de l'hérésie. Image du protestantisme et combat politique au XVII<sup>e</sup> siècle*(Paris: Le Centurion, 1985).

33) Jacque Solé, *Les origines intellectuelles de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Sanit-Étienne: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Saint-Étienne, 1997).

34) 17세기 위그노와 가톨릭의 공존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로 Gregory Hanlon, *Confession and Community in Seventeenth-Century France: Catholic and Protestant Coexistence in Aquitaine*(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3); Philip Benedict, "Un roi, une loi, deux foi: Parameters for the History of Catholic-Reformed Coexistence in France, 1555-1685", Ole Peter Grell and Bob Scribner (eds.),

이중 대표적인 성과물로 17세기 위그노 지방귀족가문의 운영과 적응방식을 고찰한 멘처의 작업과, 가톨릭과 위그노가 공유한 공동묘지의 운영방식을 통해 양 집단의 교류와 협력을 조망한 루리아(Keith Luria)의 연구를 거론할 수 있겠다. 두 저서 모두 17세기 위그노 공동체가 가톨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존의 기술을 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멘처는 특히 위그노 공동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내부적 방어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가정과 친족이라는 유대관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멘처는 카스트르(Castres) 출신으로 현재까지 신교도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라셔(Lacger) 가문의 기록을 활용, 17세기 위그노들이 가정을 통해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친족 간 반복된 결혼이나 상속을 통해 공동체의 단합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sup>35)</sup>

반면 루리아는 가톨릭과 위그노 공동체가 함께 거주했던 대표적인 지역인 푸아투(Poitou)의 장례문화를 분석한 결과, 17세기 프랑스인들은 세간의 통념보다는 훨씬 더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상호 교류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미시적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원칙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가톨릭 종부성사를 미신으로 치부했고, 가족과 지인들만 참여하는 단순하고 엄숙한 장례식을 치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루리아는 지방 소규모 도시의 경우 지역적 유대가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는 일이 흔했으며, 실제로 장례 의식이나 묘지 선택에 있어 위그노와 가톨릭교도 모두 각각의 종파적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전통적 관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주장했다.<sup>36)</sup> 일견 멘처와 루리아의 연구결과가 상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위그노와 가톨릭 공동체의 공존 방식이 일상적인 차원에서 무척 복잡적이었고,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칼뱅파 집단은 16세기 위그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가톨릭과의 공존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을

*Tolerance and Intolerance in the European Reforma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65-93.

35) Raymond Mentzer, *Blood and Belief: Family Survival and Confessional Identity among the Provincial Huguenot Nobility*(West Lafayette: Purdue Univ. Press, 1994).

36) Keith P. Luria, *Sacred Boundaries: Religious Coexistence and Conflict in Early Modern France*(Washington D. C.: Catholic Univ. of America Press, 2005).

조금 더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차원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파적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변주하여 재구성하려 부단히 노력한 17세기 프랑스 칼뱅파 공동체는 1685년을 계기로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 IV. 1685년 이후: 탄압과 저항, 그리고 이민공동체의 확산

1685년 루이 14세는 낭트칙령을 철회하고, 프랑스 내에서 칼뱅파 신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sup>37)</sup> 낭트칙령 철회로 인해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던 80만 명 정도의 위그노들은 개종, 저항, 그리고 망명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661년부터 1685년까지 위그노에 대한 법적, 물리적 억압이 확대되면서, 상당수의 신교도들은 개종을 선택, 새로운 개종자(Nouveaux Convertis)라 불리게 되었다. 이들에 대해 분석한 라부르스는 새로운 개종자들 중 다수는 진심으로 가톨릭이 되었다기보다 탄압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교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거리감을 갖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낭트칙령 철회는 종교적 개인주의 또는 반교권주의를 증폭시키는 매개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sup>38)</sup>

반면 적극적으로 저항의 길을 선택한 신교도들도 존재했다. 낭트칙령 철회 이후 프랑스 왕실은 개종을 거부하거나 망명을 시도하다 붙잡힌 신교도들에게 징역형이나 갤리선 노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부과했는데, 신앙을 지킨 일부 신교도들, 특히 38년간 옥살이를 한 마리 뒤랑(Marie Durand, 1711-1776) 등은 종교적 불관용과 독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하기도 했

37) 퐁텐블로 칙령이 반포되기 전후 프랑스 왕실의 이해관계와 역동에 대해서는 Janine Garrisson, *L'Édit de Nantes et sa Révocation, histoire d'une intolérance*(Paris: Seuil, 1985); 위그노 사회의 반응과 저항에 대해서는 Walter Utt & Brain Strayer, *The Bellicose Dove: Claude Brousson and Protestant Resistance to Louis XIV, 1647-1698*(Brighton and Portland: Sussex Academic Press, 2003). 또한 1685년 몽펠리에 칙령의 의미와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R. Juber et L. Theis (dir.),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et le protestantisme français en 1685*(Paris: S.H.P.F., 1986).

38) Elisabeth Labrousse, *Une foi, une loi, un roi? Essai sur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Paris: Labor et Fides/Payot, 1985).

다.<sup>39)</sup> 또한 좀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운동도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1702년 세벤 지역에서 일어난 카미자르(Camisards) 전쟁이다. 카미자르 전쟁은 광신적 예언주의와 신비주의적 성격을 지녔으며, 무장폭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역사에서 독특한 현상이라 평가되어왔다.<sup>40)</sup> 카미자르와 세벤 지방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 주타르(Philippe Joutard)는 카미자르 그 자체뿐 아니라 카미자르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해석되며 평가되었는지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sup>41)</sup>

18세기 이후 프랑스 개혁파 교회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낭트칙령 철회 이후 여전히 프랑스에서 신교도 신앙을 지니고 있던 이들을 보통 데제르(Désert)라 부르는데, 그들은 앙트안 쿠르(Antoine Court, 1695-1760)의 지도 아래 다시 교회조직을 재건했고, 전국교회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칼뱅파의 전통을 보존해나갔다. 18세기 프랑스 데제르의 심성과 조직에 대한 연구로는 크루메나커(Yves Krumenacker)의 저작이 대표적이며, 당시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을 대표하는 인물인 쿠르와 여성신학자 마리 위베르(Marie Huber, 1695-1753)에 대한 연구들도 주목할 만하다.<sup>42)</sup>

이렇듯 1685년 이후 프랑스 내부의 위그노 공동체는 일종의 비밀결사처럼

39) 낭트칙령 철회 이후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거나 망명한 이들의 후기 분석에 대해서는 Carolyn Lougee Chappell, “《The Pains I Took to Save My/His Family》: Escape Accounts by a Huguenot Mother and Daughter after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2, No. 1(Winter 1999), pp. 1-64; Carolyn Lougee Chappell, “Writing the Diaspora: Escape Memoirs and the Construction of Huguenot Memory”, Philip Benedict, Hugues Daussy & Pierre-Olivier Lécho, *L'identité huguenote*, pp. 261-277.

40) 강미숙, 「카미자르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서양사학연구』 9집(2003), pp. 19-37.

41) Philip Joutard, *Les Camisard*(Paris: Gallimard, 1976); Philip Joutard, *La légende des Camisards, Une sensibilité au passé*(Paris: Gallimard, 1977).

42) 쿠르에 대한 연구서로 다음을 참조할 것. Hubert Bost & Claude Lauriol (dir.), *Entre Désert et Europe, le pasteur Antoine Court(1695-1760)*(Paris: Champion, 1998); 마리 위베르에 대한 연구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aria-Cristina Pitassi, “Être femme et théologienne au XVIII<sup>e</sup> siècle. Le cas de Marie Huber”, *De l'Humanisme aux Lumières, Bayle et le protestantisme*(Paris/Oxford: Universitas/ Voltaire Foundation, 1996), pp. 395-409; Yves Krumenacker, “Marie Huber, une théologienne entre piétisme et Lumières”, Hubert Bost et Claude Lauriol (dir.), *Refuge et Désert. L'évolution théologique des huguenots de la Révocation à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Champion, 2003), pp. 99-115.

유지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적 관용과 사상의 자유라는 시대정신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선구적 사상가로 피에르 벨(Pierre Bayle, 1647-1706)을 들 수 있으며, 이후 프랑스 신교도들이 추구한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저항정신은 계몽주의자인 볼테르나 루소 등을 통해 프랑스의 지적 담론 중 하나로 대두하게 되었다.<sup>43)</sup> 이처럼 18세기 이후 프랑스 신교도들은 저항과 관용이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의 중심으로 삼았고,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사로 자리 잡게 된다.<sup>44)</sup>

1685년 이후 위그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택지는 바로 망명이었다. 정확한 추산은 힘들지만, 역사가들은 낭트칙령 철회 이후 1715년경까지 대략 15만에서 18만 정도의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망명을 선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해외로의 망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명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은 프랑스 북부 지역 출신(노르망디, 피카르디, 샹파뉴)이 남부 지역보다 훨씬 더 높았고, 망명 위그노의 계층과 직업은 목사에서 수공업자, 상인, 그리고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었다. 망명 위그노들은 주로 네

43) 피에르 벨에 대한 고전적 연구서로 Élisabeth Labrousse, *Pierre Bayle*, t. I: *Du Pays de Foix à la cité d'Érasme*(La Haye: M. Nijhoff, 1963, 2<sup>e</sup> éd., Dordrecht: M. Nijhoff, 1985); Élisabeth Labrousse, *Pierre Bayle*, t. II: *Hétérodoxie et rigorisme*(La Haye: M. Nijhoff, 1964, 2<sup>e</sup> éd., Paris: A. Michel, 1996), 최근 자료로 Hubert Bost et Philippe de Robert (éds.), *Pierre Bayle, citoyen du monde. De l'enfant du Carla à l'auteur du Dictionnaire*(Paris: Champion, 1999), Philippe de Robert et al. (dir.), *Le Rayonnement de Bayle*(Oxford: Voltaire Foundation, 2010). 피에르 벨과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의 관계는 Michelle Magdelaine, Maria-Cristina Pitassi, Ruth Whelan, Antony McKenna (dir.), *De l'Humanisme aux Lumières, Bayle et le protestantisme*(Paris/Oxford: Universitas Voltaire Foundation, 1996). 프로테스탄티즘과 관용정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웅중, 「존 로크와 피에르 벨의 관용론」, 『프랑스사 연구』 19호(2008), pp. 105-124; Bernard Cottret, “Tolérance ou liberté de conscience ? Épistémologie et politique à aube des Lumières”, *Études théologiques et religieuses*, Vol. 65, No. 3(1990), pp. 333-350.

44) 위그노의 경험과 관용정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Geoffrey Adams, *The Huguenots and French Opinion, 1685-1787, The Enlightenment Debate in Tolerance*(Waterloo: Laurier Univ. Press, 1991); Claude Lauriol, “Philosophes et protestants dans la France du XVIII<sup>e</sup> siècle”, *Études théologiques et religieuses*, Vol. 69(1994), pp. 13-27.

덜란드, 스위스, 영국, 독일, 그리고 아메리카 등 식민지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현대의 위그노 연구자들은 17세기 말 본격화된 위그노들의 대량 이주를 ‘위그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아래 분석하고 있다.

위그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고전적인 주제는 17세기 후반 위그노의 대규모 망명이 지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것이다. 오랫동안 위그노의 망명은 17세기 프랑스 경제 위축의 주요한 요인이라 여겨졌지만, 최근 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가 스코빌(W. C. Scoville)은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경기 위축은 1685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된 현상이며, 위그노 상공업자들의 이탈은 분명 존재했지만, 이를 대체할 여지는 충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45)</sup>

현대 사회에서 이주와 이민이 점차 보편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경향에 맞추어, 위그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위그노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로 부상하였다.<sup>46)</sup> 위그노 디아스포라 연구자들은 위그노 망명 공동체의 적응과 갈등, 그리고 위그노 출신 이주자들의 정체성 형성과 그 세대 간 전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위그노 이주공동체의 경험을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sup>47)</sup>

45) Warren Scoville, *The Persecution of the Huguenots and French Economic Development (1680-1720)*(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0).

46) John M. Hintermaier, “The First Modern Refugees? Charity, Entitlement, and Persuasion in the Huguenot Immigration of the 1680s”, *Albion: A Quarterly Journal Concerned with British Studies*, Vol. 32, No. 3(Autumn 2000), pp. 429-449.

47) 위그노 망명의 전통을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한 저서로 Neil Kamil, *Fortress of the Soul: Violence, Metaphysics, and Material Life in the Huguenots' New World, 1517-1751*(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Susanne Lachenicht, “Huguenot Immigrants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ies, 1548-1787”, *The Historical Journal*, Vol. 50, No. 2(Jun. 2007), pp. 309-331; D. J. B. Trim (ed.), *The Huguenots: History and Memory in Transnational Context: Essays in Honour and Memory of Walter C. Utt*(Leiden/Boston: Brill, 2011).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위그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Eckart Birmstiel, *La Diaspora des Huguenots, Les refugies protestants de France et leur dispersion dans le monde (XVI<sup>e</sup>-XVIII<sup>e</sup> siècle)*(Paris: Champion, 2001); Bertrand Van Ruymbeke

우선 5만 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정착한 영국(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포함)은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정착지 중 하나였다. 영국 왕실은 위그노의 정착을 환영했고,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좋은 이주 여건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주 초기부터 위그노들은 적극적으로 영국 사회에 동화되었고, 칼뱅과 신앙을 버리고 영국 국교회로 개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sup>48)</sup>

한편 네덜란드는 가장 많은 망명 위그노들이 선택한 지역으로, 18세기 말에는 약 7만 명 정도의 위그노가 네덜란드와 저지대 지방에 정착했다고 추산된다. 네덜란드에는 16세기부터 위그노 망명공동체가 존재했고, 17세기 내내 국제적 교류가 지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망명자들이 네덜란드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7세기 후반 망명한 위그노들은 네덜란드 사회에 동화되기보다는 기존 위그노 공동체에 편입,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피에르 벨과 피에르 쥐리외(Pierre Jurieu, 1637-1713) 등 위그노 출신 유명 사상가들이 네덜란드에 정착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은 망명 위그노들의 학문적 중심지가 되었다.<sup>49)</sup>

연방국가였던 독일은 지역별로 위그노 망명자에 대한 처우가 상이했다. 루터파 신봉지역에서 위그노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 반면, 칼뱅파 지역인 브

and Randy J. Sparks (ed.), *Memory and Identity: The Huguenots in France and the Atlantic Diaspora*(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8); Jane McKee and Randolph Vigne (ed.), *The Huguenots: France, Exile and Diaspora*(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13).

- 48) Cottret Bernard, *The Huguenots in England: Immigration and Settlement, 1550-170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Robin Gwynn, *Huguenot Heritage: The History and Contribution of the Huguenots on Britain*(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01); Raymond Hylton, *Ireland's Huguenots and Their Refuge, 1662 - 1745: An Unlikely Haven*(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2005); Anne Dunan-Page et Marie-Christine Munoz, *Les Huguenots dans les îles britanniques de la Renaissance aux Lumières, Écrits religieux et représentations, Dictionnaire des pasteurs dans la France du XVIII<sup>e</sup> siècle* France(Paris: Champion, 2008).
- 49) E. Labrousse, "Les idées politiques du Réfuge: Bayle et Jurieu", *Conscience et Conviction: Études sur le XVII<sup>e</sup> Siècle*(London: Voltaire Foundation, 1996); Nicolas Pique, "Du loyalism monarchique à la souveraineté populaire: L'évolution théologique-politique de Pierre Jurieu", Hubert Bost et Claude Lauriol (dir.), *Réfuge et Désert: L'évolution théologique des huguenots de la Révocation à la révolution française*(Paris: Champion, 2003), pp. 55-68.

란덴부르크와 베를린 등은 위그노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그들을 위해 프랑스어 예배와 설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 이주한 위그노들은 농업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전개, 이후 프로이센 왕국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sup>50)</sup>

반면 칼뱅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의 경우, 오히려 위그노들의 정착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제네바를 비롯한 스위스 여러 도시에는 16세기부터 프랑스 출신 망명자의 수가 무척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스위스의 물적 조건 속에서 대규모 이민은 식량난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위그노들의 최종 정착지라기보다는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었고, 17세기 후반 스위스에 정착한 위그노의 수는 독일보다도 적은 3만 명 정도에 그쳤다.<sup>51)</sup>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찾아 모험정신을 발휘하거나 기존 정착지에서 적응에 실패한 일부 위그노들은 아메리카 등 신대륙에 정착,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시험하기도 했다.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메리카와 캐나다 퀘벡 지역 등지에 정착한 위그노 공동체에 대한 세부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sup>52)</sup>

이렇듯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신대륙 등 전 세계로 확산된 위그노 이주 공동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정착한 국가 내부에 동화되었지만, 그들의 위그노적 유산과 전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위그노 망명

50) Viviane Rosen-Prest, *L'historiographie des Huguenots en Prusse au temps des Lumières. Entre mémoire, histoire et légende*(Paris: Champion, 2002); Erik Hornung, "Immigration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The Huguenot Diaspora in Prussi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4, No. 1(2014), pp. 84-122.

51) Olivier Reverdin (dir.), *Genève au temps de la Révocation de l'édit de Nantes, 1680-1705*(Genève/Paris: Droz/Champion, 1985).

52) Molly McClain and Alessa Ellefson, "A Letter from Carolina, 1688: French Huguenots in the New World",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64, No. 2(2007), pp. 377-394; Paul McGraw, "The Memory of the Huguenots in North America: Protestant history and polemic", D. J. B. Trim (ed.), *The Huguenots: History and Memory in Transnational Context*, pp. 285-305; Marie-Claude Rocher, Marc Pelchat, Philippe Chareyre et Didier Poton (dir.), *Huguenots et protestants francophones au Québec. Fragments d'histoire*(Montréal: Novalis, 2014).

공동체의 운영과 정체성의 세대 간 전수에 대한 연구는 근대 국가에서 소수파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고찰할 수 있는 주제로, 더욱 많은 관심이 요청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 V. 나가며

2015년 현재, 프랑스에는 500명의 목사와 1,000개의 교회, 40만 정도의 프로테스탄트 신도가 존재하고 있다.<sup>53)</sup> 이는 종교집단으로서 가톨릭과 무슬림에 이어 세 번째 정도의 규모지만, ‘제3의 종교’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소수에 불과하다. 사실상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집단은 16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주역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그노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소수와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형하며 재구성해왔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16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위그노 집단은 부단히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왔다. 1540년대부터 1598년까지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칼뱅파라는 종파적 정체성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프랑스가 새로운 신앙 아래 개편될 것이라 믿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자 위그노라는 정치적인 정파를 형성했다. 내전과 학살의 시련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이 한낱 유토피아적 소망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된 위그노들은 낭트칙령 이후 17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역사상 유례가 드문 종교적 공존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시기 개혁파 공동체는 과거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성격을 포기하고, 지적이고 경제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좀더 유연한 사회문화적 공동체로 자신들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위그노 공동체의 정체성은 1685년 이후 탄압과 망명의 경험을 통해 ‘저항’이라는 정서 아래 다시 변형된다. 이제 위그노 집단은 종교적 불관용 아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기수이자, 근대 사회에 어울리는 관용정신과 사상의 자유를

53) 현재 프랑스 칼뱅파 교단은 루터파와 연대해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 연합(Église protestante unie de France)을 구성한 상태다. 과거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의 중심은 칼뱅파 계열이었지만, 알자스 지방이 프랑스로 편입된 이후 루터파 교도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결국 2013년 두 교파는 통합되어 단일교단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자료는 [www.eglise-protestante-unie.fr](http://www.eglise-protestante-unie.fr)를 참고할 것(검색일: 2015년 7월 18일).

위해 노력한 선구자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위그노 집단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상수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유동적인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 소수파로서 자신들의 존립을 유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위그노 집단은 시대마다 다른 전략을 선택했고, 과거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에 걸맞은 기억을 선별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해왔다. 따라서 위그노 집단이 지닌 정체성과 그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역사적 고찰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내 프랑스사학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향후의 연구 방향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우선 16세기 종교내전과 프랑스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위그노 집단이 담당한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좀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위그노 가문들을 선정, 그들의 개종 원인, 내전에서의 역할, 낭트칙령 이후 변화된 사회 속에서 가문의 역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파악되었던 16세기 위그노 집단의 내밀한 실체에 접근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16세기와 17세기 위그노 공동체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제안할 만하다. 16세기 위그노 당파의 정치적, 군사적 속성을 포기한 17세기 위그노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특성을 간직하며 프랑스의 가톨릭중심 질서 속에서 공존할 수 있었는지, 이를 가능케 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프랑스 역사 속에서 위그노의 역할을 통시적으로 파악하게 해줄 뿐 아니라, 소수파 공동체가 적대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끝으로, 18세기 이후 위그노 이민공동체의 형성과 변형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라 여겨진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이민과 이주의 역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위그노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길고 복잡한 이주의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아내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낭트칙령 철회 이후 위그노들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신대륙 등지에 정착한 과정을 비교한다면, 이민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이주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고의 위그노 전문가들이 모여 위그노의 집단정체성에 대해 고찰한 저서 『위

그노의 정체성: 기억하기 그리고 역사쓰기』의 서문에서, 베네딕트와 도시는 21세기 위그노 정체성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종교나 정치가 아닌 바로 ‘역사’ 그 자체라 언급한 바 있다.<sup>54)</sup> 종교적 소수파로 살아오면서 겪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체성의 본질이 결정된다는 베네딕트와 도시의 주장은 비단 위그노라는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위그노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소수자 집단의 형성과 역동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기억과 역사, 그리고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좀더 보편적인 연구 주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성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5. 7. 21 심사일자: 2015. 8. 3 게재확정일자: 2015. 8. 5〉

**주제어** : 위그노(Huguenots), 종교내전(Wars of Religion), 종교의 자유(Liberty of Conscience), 저항정신(Spirit of Resistance), 이민공동체(Immigrant Communities)

54) Philip Benedict, Hugues Daussy et Pierre-Olivier Lécho, *L'identité huguenote*, pp. 16-19.

## 〈국문초록〉

### 위그노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

- 16세기 종교내전에서 18세기 이민공동체의 형성까지 -

박 효 근

본 논문은 프랑스 역사에서 한 번도 진정한 주역이 되지 못했던 대표적 소수와 집단인 위그노의 정체성 변천 과정을 연구사적으로 검토한 시론이다. 16세기 칼뱅파 사상의 도입을 통해 형성된 위그노는 근본적으로 종교집단이었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위그노를 16세기 프랑스 종교 내전 속에서 활동한 정치적 이권단체로만 규정해왔다. 그러나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위그노들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부단히 변형하고 재구성했다. 16세기 중반 이후 개혁파 종교지도자들은 프랑스를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변형시키기 위한 유토피아적 구상 아래 현실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정치적 당파인 위그노 집단으로 변형되었고, 바르텔르미 대학살과 낭트칙령 이후 이러한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며 가톨릭과의 사회적 공존을 모색하였다. 1685년 퐁텐블로 칙령 이후 프랑스에서 칼뱅파 신앙이 법적으로 금지되자, 위그노 집단은 내적 저항과 외부 망명으로 이에 대항하였으며, 정치적, 사상적 독재에 맞서는 저항집단으로 스스로를 재규정하였다. 이처럼 위그노의 집단정체성은 고정불변의 상수가 아닌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유동적인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위그노 정체성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프랑스와 영미권의 다양한 위그노 연구 성과를 종합,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위그노 연구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Résumé〉****Changements historiques de l'identité des Huguenots:  
Des Guerres de religion au XVI<sup>e</sup> siècle  
à la formation de communautés immigrantes au XVIII<sup>e</sup> siècle**

Hyogeun PAHK

Le groupe calviniste français, aussi connu comme les Huguenots, a été un des groupes minoritaires le plus distingué dans l'histoire française. Les Huguenots avaient été initialement une secte religieuse, formée par la doctrine protestante de Calvin, mais presque tous les historiens les ont considérés comme la faction politique qui s'est constituée au cours des guerres de religion au XVI<sup>e</sup> siècle. Toutefois, certains spécialistes de l'histoire des Huguenots ont commencé à examiner, sous de nouvelles perspectives, divers identités des Huguenots qui se sont transformées et ont été reconstruites à travers leurs situations historiques aux XVI<sup>e</sup>-XVIII<sup>e</sup> siècles. Le but de cet article est de présenter les résultats de recherches récentes sur les changements historiques de l'identité collective des Huguenots et de proposer de nouvelles orientations d'études sur les Huguenots.

**〈Summary〉**

**Historical Changes of Huguenots' Identity:  
From Wars of Religion in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Formation of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Eighteenth Century**

Hyogeun PAHK

The French Calvinist group, as known as Huguenots,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minority in French history. Huguenots were initially a religious sect, formed by Calvin's protestant doctrine, but almost all the historians have considered them as the political faction which was constituted during the Wars of Religion in the sixteenth century. However, some specialists on Huguenots history started, under new perspectives, to examine Huguenots' various identities which were transformed and reconstructed through their historical situations from sixteenth to eighteen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cent research results on historical changes of Huguenots' collective identity and to suggest new directions of Huguenots studies.